One pick 업 앤 다운

## ‘곽진영 스토킹’ 50대 남성 구속

곽진영

최근 여성들을 겨냥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기자 곽진영을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연예계에 따르면 곽진영을 4년 동안 스토킹하고 협박한 의혹을 받아온 남성 A씨가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A씨는 주거침입,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곽진영은 A씨가 4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고, 가족의 사업장에까지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는 등 괴롭혀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씨가 1원씩 모두 1140회에 걸쳐 계좌 송금을 하며 악의적 문구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에 곽진영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허위사실이라며 그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곽진영은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곽진영은 1991년 MBC 공채 20기 탤런트 출신으로, 이듬해 MBC 주말극 ‘아들과 딸’의 종말이 역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현재 고향인 전남 여수에서 갓김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출연자 화제성 2위 이어 2PM 영상도 인기 역주행

# ‘젊은 정조’ 이준호, 송혜교도 제쳤다

첫 사극물 ‘옷소매…’ 시청률 9.4%
송혜교 주연 ‘지금…’ 단숨에 추월
‘자백’ 이후 3년 만의 복귀작 대성공
2PM ‘해야 해’ 유튜브 뮤비도 인기

연기자 겸 가수 이준호가 MBC 금토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젊은 정조를 연기하며 시청률과 화제성을 끌어 모으고 있다. 사진제공 | MBC

연기자 겸 가수 이준호가 ‘터졌다’.

주연 중인 MBC 금토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의 가파른 시청률 상승세를 견인하면서 안방극장 주역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2019년 tvN ‘자백’ 이후 3년 만의 안방극장 복귀작으로 공백을 말끔히 지웠다는 평가도 받는다. 연기자로서 얻은 화제를 그룹 2PM의 활동 무대로까지 이어갈 태세다. 그룹 멤버 옥택연·황찬성 등과 펼치는 연기 경쟁도 ‘화력’에 불을 지핀다.

**●톱스타 물리치고 화제성 정상**

이준호는 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젊은 시절인 이산을 연기하면서 궁녀 이세영과 로맨스를 쌓고 있다. 11월12일 5.7%(닐슨코리아)로 시작한 시청률을 6회 만인 11월27일 9.4%까지 끌어올렸다. 동시간대 시청률 맞대결을 치르는 송혜교 주연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7.6%)를 단숨에 제쳐 방송가 안팎에서는 ‘이변’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화제성으로도 이를 보여준다. 화제성 조사회사 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이준호는 11월 4주차(22~28일)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2위에 올랐다.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웨이브에서는 같은 시기 가장 많은 드라마 VOD 시청건수를 기록했다.

2019년 tvN ‘왕이 된 남자’ 등 사극 경험이 있는 이세영과 달리 이준호는 2013년 영화 ‘감시자들’로 연기 데뷔한 이후 처음으로 사극 장르에 도전해 시청자 호기심이 쏠렸다.

“사극 연기가 자연스러워 놀랐다”는 실시간 댓글 등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2PM 과거 무대도 ‘역주행’ 인기**

이준호는 이 같은 활약으로 그룹 2PM으로 쌓아온 기존 팬덤 뿐 아니라 폭넓은 시청자들의 관심까지 얻는 데에도 성공한 분위기다.

2PM 멤버들과 6월 내놓은 곡 ‘해야 해’의 유튜브 뮤직비디오에는 “드라마를 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댓글이 최근 급증했다.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 ‘이준호’로 선보이는 일상 영상은 공개 반나절 만인 2일 16만뷰를 모아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차트에도 진입했다.

2019년 5월 입대해 3월 전역하기까지 공백기를 보낸 탓에 쉬지 않고 각종 활동을 이어갈 의지를 드러낸다. 전역 이전부터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본을 받아온 이준호는 ‘옷소매 붉은 끝동’을 마친 이후 곧바로 차기작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내년 방영을 준비하는 여러 드라마의 제작진이 주연 제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31일 MBC ‘가요대제전’의 진행자 자리를 맡아 무대에 오른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신생팀 FC아나콘다의 윤태진 아나운서 등이 활약 중인 SBS ‘골때리는 그녀들’ 시즌2의 한 장면. 사진출처 | SBS 방송화면 캡처

## ‘골때녀’ ‘뭉찬’… 예능 접수한 축구

〈골 때리는 그녀들〉 〈뭉쳐야 찬다〉

월드컵 앞두고 시즌2 앞다퉈 방영
‘골때녀’ 송소희·바다 등 스타 탄생

축구가 ‘뜨고’ 있다.

SBS ‘골 때리는 그녀들’(골때녀)과 JTBC ‘뭉쳐야 찬다’ 시리즈 등이 불붙인 방송가의 축구 프로그램 열기가 내년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개최까지 1년 남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관련 시선을 미리 선점하려는 이른 시도로도 보인다.

현재 방영 중인 ‘골때녀’ 시즌2는 신생팀을 추가하고, 시즌1과는 다른 경기 운영 방식을 택했다. 다양한 대진으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이전보다 더 길어진 방영시간을 위해 내놓은 전략이다. 제작진은 관련 전문가들과도 상의하며 다양한 경기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6개팀을 지난 시즌 성적에 따라 상·하위 리그로 나눠 신생 3개팀이 하위 리그에서 한 경기씩 치르도록 하고 있다. 배우 박선영이 이끄는 시즌1의 1위팀 FC불나방 등도 슈퍼 리그를 통해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이미 스타도 생겨났다. FC원더우먼의 가수 송소희, FC탑걸의 가수 바다 등이다.

tvN은 유소년 축구팀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골든일레븐2’를 방영 중이다. 대한축구협회와 공동제작하는 프로그램에는 이천수·조원희·백지훈 등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감독으로 나서고 있다. tvN은 채널 운용사인 CJ ENM이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전 중계권을 보유한 만큼 중계채널 이미지를 쌓는 데 집중하고 있다. MBC 등도 축구 소재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이에 따라 축구 스타 영입을 위한 각 제작진의 물밑작업도 치열하다. 이천수와 이동국이 가장 주목 받고 있다. 이천수는 다양한 방송 경험을 갖춘 데다 유튜브 계정 ‘리춘수’ 등으로 10~20대 이용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이동국은 ‘뭉쳐야 찬다2’ 등을 통해 입담을 뽐냈다. 최진철, 김정우 등도 방송 활동을 위해 최근 연예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